

<로마서 1 장 성경공부> (21.06.28~29)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구약의 전체 내용!

선지자들, 곧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내용의 핵심이 이 복음!

하나님께서 열심 내시는 것이 이 복음!

그러니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선 이 복음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 부터 증거하셨고

(3-4 절)예수님께서서는 이 복음을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다면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기에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살았고, 그냥 비굴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없는 삶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이런 확신이 사도바울로 하여금 살게 한 것이다.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

나도 이런 신분으로 부르셨다.

(창 28:13-15)의 신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고 살아야 한다.

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동기력 있게 드러져야겠다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가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을 받은 것이란 확신

그 안에서 내가 창 28:13-15 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확신

지상사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의 나는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선 정말 놀라운 일을 이뤄 주신다.

(9 절) 그 복음 안에서

잘 생각해보면

"복음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인 것임!

사도 바울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모든 자격은 보혈 안에 모두 속해있는 것임!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선, 열망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안에, 그 보혈 안에 모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시 81:10)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신분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동일시"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됨이로다

항상 바울의 편지의 시작은 감사

감사하는 태도가 항상 있었다.

일단 우리 삶의 기본 값은 감사가 되어야겠다.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이 교제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감사한 것이다.

건회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이 뭐냐 마음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

그 중심으로 섬긴다는 뜻

그러니까 포장은 섬기는 것 처럼 보이게끔 할 수 있는데

모든 마음 다해서 섬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령으로 섬겨야 마땅한 분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삶도, 점점 주님께 내 마음마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겠다.

정말 때 묻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 자백기도하고

- 다시 죄를 짓지 않고

-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 하였다.

그의 기도에는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나의 기도에는 쉬지 않고 나에 대한 내용밖엔 없는데

영적 전쟁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도 열심히 기도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되겠다.

## 10.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있다.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만나야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사도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교제의 축복이다. 만나서 교제를 하면 바울 자신의 믿음과 또 그가 돕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만나서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나 혼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것이다.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 그러니 로마서 1 장은 교제를 하자는 장인 것 같다. 교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장이다!  
교제하면 열매가 생기는 것이다.

교제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든지 교제를 열심히하면 된다.

전화 연락 많이

더욱 열심히 만나기

11.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함이니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한 것은

"신령한 은사!" 를 나눠주고자 하는 확신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선 그들이 견고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견고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정도로

나의 나누는 말씀은 강력한가..?

나의 삶은 말씀과 동일한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텐데...

그런 신령한 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도바울은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남달랐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대하는 그 가치관이 달랐다.

나의 가치관과 그의 가치관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은 같을텐데..

왜 달랐을까?

그의 삶이 헌신되어 있어서인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15 글자에 해당하는 이 말이 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길래..

그토록 확신껏 산 것인가.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

말씀안에 거해야 한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인 뿐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야만, 그리고 지혜있는자와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자라 하였다.

아니 그냥 준비된 사람에게는 빚진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잘 안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나 싶기까지 한데....

사도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자라고 하였다.

왜냐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할텐데...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자!

18. "진리를 막는"

이게 죄의 핵심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지말라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안한 그 행위 자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

19.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

20. "핑계치 못할찌니라"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타내신 것들을 다 나열하실 때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  
두워졌나니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보고, 듣고 했지만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기 위해 기도하면서 휴가를 얻었지만

자기 놀러 갔던 후임...

내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 많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적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진 경우 많지 않은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의 즐거움

교제 속에서의 즐거움을 누릴려고 해야되겠다.

훈련 목표 : 저녁 시간 성경읽기, 일과중에 연락드리기

(22~28 절)

(하나님 버림 > 내어 버려두심 > 정욕) x3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불행한 것이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 많다

하나님을 버려선 안되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보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찾아야 되겠다.